

환경교육이 교육과정 상에서 학교 교육에 자리를 잡고 활성화 되는 과정이나 분산적인 접근, 동아리 활동 등에서는 잘 자리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독립 과목 선택을 변화나 교사의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는 우려를 자아내게 된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학교 환경교육이 현재보다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환경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 환경 교사 임용 확대 등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학교 환경교육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최 돈 형 | 한국교원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환경학교육연구소 소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원장, 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 한국교육개발원 환경교육연구부 부장 등 역임  
tel. 043-230-3757 | dhchoi@knue.ac.kr

### 학교 환경교육의 역사

#### | 학교 환경교육의 변천 과정 |

한국 학교 환경교육의 변화 과정은 다양한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학교 교육과정의 변화 과정에 따라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네 단계로 시기 구분을 할 수 있다.

#### 가. 태동기(1980년 이전)

1970년대에는 환경교육의 발전 과정에 큰 이정표 역할을 한 국제적인 노력들이 많이 전개되었다. 이 시기에는 세계적 조직을 갖춘 민간 환경 단체(그린 피스, 시에라 클럽,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 로마 클럽 등)가 조직·출범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세계 수준에서의 환경교육 풍토를 조성한 시기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도 당시에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따라 환경교육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이 시기는 1970년대 초반에 시작된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진행 과정에서 개발의 부작용으로 많은 환경 문제가 발생한 때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환경 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처음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의 환경교육은 자연 보호 운동과 구별되지 않은 채 국민 홍보의 수준에서 이루어져 국민들의 공통된 인식을 이끌어 내기에는 설득력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다. 여명기의 학교 환경교육은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이후 학교환경교육의 성립과 정착의 기초를 마련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 나. 성립기(1981~1991년, 제4, 5차 교육과정)

이 시기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즉, 도시의 급속한 성장과 팽창으로 인해 도시 환경의 악화와 도시 주변의 삼림 지역이 심각하게 훼손되던 시기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의 소득 수준 증대로 인한 여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등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환경 보존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였다.

이 시기는 이러한 국가 사회의 요구가 학교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반영된 시기이다. 1981년에 고시된 제4차

교육과정 총론편(교육 목표와 편제)의 운영 지침은 '..... 환경교육 등은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이라는 선언적인 규정을 하고 있으며, 각론에서는 관련 교과목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환경교육 관련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이때 사회과에서는 '공해', 자연과에서는 '환경 오염' 등 구체적인 환경 용어들이 교육과정에 등장하게 된다.

1987년에 고시된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서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라는 규정과 '인간을 존중하고 자연을 아끼며'라는 규정을 두어 환경교육에의 의지를 더욱 분명하게 밝혔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의 지침에 따라 이 시기부터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의 여러 관련 과목들에서 환경 문제를 다루게 되는, 이른바 분산적 접근에 의한 학교 환경교육이 시작되었다.

#### 다. 정착기(1992~1999년, 제6차 교육과정)

이 시기에는 환경교육이 학교교육 속에 제도화되어 '환경과'가 독립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1992년에 고시된 제6차 교육과정을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재량 시간 및 특별활동 그리고 학교급별 특별 활동을 이용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환경', '환경과학' 등 환경과가 독립 과목으로 신설되었다. 이러한 환경과의 독립은 보다 안정된 기반 위에서 환경교육이 제도화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는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도 제6차 교육과정 개정에서 환경교육이 강화되고 중등학교에서는 이를 위한 독립과목이 설치·운영되게 됨으로써, 학교 환경교육의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 전략 등 학교환경교육의 제도화·체계화·내실화를 다지는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 라. 확립기(2000년 이후, 제7차, 2007 개정, 2009 개정, 2011 개정 교육과정)

이 시기는 제6차 교육과정을 통해 환경교육이 하나의 교과로 독립하여 환경교육사에서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고, 정착기에 접어들었던 환경교육의 위상을 확립

시키는 시기이다. 중등학교에서 2001학년도부터 시행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선택교과로서 중학교에서의 '환경'과 고등학교에서의 '생태와 환경' 과목이 개설·운영되면서 독립 교과로서 환경교육의 위상을 확립하게 되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측면이 강조되면서 고등학교 과목 이름이 '환경'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과목 이름이 '환경과 녹색성장'으로,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과목 이름도 '환경과 녹색성장'으로 변경되어 녹색성장교육이 반영된 학교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 | 학교 환경교육의 철학적 변화 |

앞선 논의가 학교 환경교육의 변화를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서 조명해 본 것이라면, 이제는 학교 환경교육의 변화를 교육 철학의 패러다임적 변화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자 한다. 환경과가 독립된 제6차 환경과 교육과정을 분석해 보면,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이라는 국가적 사회적 요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증주의' 패러다임에 근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로부터 5년 후에 시행된 제7차 환경과 교육과정에서는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통합적 성격을 강조하여, 환경윤리, 환경경제, 환경정책 단원이 새롭게 신설되었다. 이는 실증주의, 과학기술중심주의를 벗어나서 생태적, 인문·사회과학적 접근의 강화와 환경 감수성을 강조한 '해석주의' 패러다임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는 사회, 경제, 환경에 대한 균형있는 접근을 요구하므로 패러다임의 측면에서 '사회비판주의' 성격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과정의 진화 방향이 해석주의와 사회비판적 패러다임이 강화되고 구성주의가 확대되는 방향을 향해 있고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환경정의'가 명시되는 정도로 진전되었다. 하지만 보편적 환경 불평등의 해결

이나 권력관계의 극복 등에 대한 명시적 지향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패러다임 변화 측면에서 보았을 때 환경 불평등 해결과 권력관계 문제 등까지 확대된 사회비판적 패러다임의 강화가 한국 환경교육의 발전에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학교 환경교육의 현재

### | 환경 과목 운영 현황 |

학교 환경교육의 현재 모습을 파악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 한 가지는 독립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 및 '환경과 녹색성장' 과목의 운영 현황을 파악해 보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전국 중등학교 중 547개(중학교 175개, 고등학교 372개) 학교에서 '환경' 및 '환경과 녹색성장' 과목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총 중등학교가 5,435개(2011. 12 기준)임을 감안했을 때 약 10%의 학교가 '환경' 또는 '환경과 녹색성장'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중학교의 선택률은 약 5.6%이고, 고등학교의 선택률은 약 16.3%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중학교 보다는 고등학교에서 약 3배 정도 더 많이 '환경' 및 '환경과 녹색성장' 과목을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선택률에서, 가장 높은 선택률을 보인 지역은 충북(25.7%)이었고, 가장 선택률이 낮은 지역은 인천(3.6%)과 강원(3.6%)이었다. 선택률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의 선택률 차이는 약 7배 정도로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선택률이 가장 높은 세 지역 선택 학교가 전국 전체 선택 학교의 약 절반 정도(48.8%)를 차지하고 있어서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연도별 과목 선택 학교 변화는, 2010년도에는 563개 학교, 2011년도에는 599개 학교, 2012년도에는 547개 학교에서 선택을 하여 2012년에 들어 선택학교가 줄어 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고등학교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는데, 고등학교의

경우 2010년도에 426개 학교, 2011년도에 477개 학교에서 선택을 하였는데, 2012년도에 372개 학교가 선택을 해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2012년도부터 선택 학교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독립 과목으로 운영되는 환경과목의 선택 현황을 분석해 보면, 현재 학교 환경교육은 외형적인 면에서 점차 입지가 좁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 환경 과목 선택 학교 교사의 전문성 |

학교 환경교육의 현재 모습을 파악하는 데 있어 과목 선택 현황과 함께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것이 교사의 전문성 현황이다. 교사가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이고, 교사의 전문성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무엇보다 크기 때문이다.

2012년도에 '환경' 및 '환경과 녹색성장'을 선택한 학교에서 해당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의 자격을 보면 약 77.6%의 학교가 상치교사(타 과목 전공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교사 자격을 갖고 환경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는 22.4%에 불과한 것이다. 과목 선택 현황에서 2012년에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약 10%가 '환경' 및 '환경과 녹색성장'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전체 중·고등학교 중 약 2.2%에서만 환경 교사 자격을 갖춘 교사에 의해서 환경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국의 중등학교가 100개라면 그 중 10개 학교에서 '환경' 및 '환경과 녹색성장' 과목이 운영되고 있고, 다시 그 중 2개 학교에서만 환경 전공 교사가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환경교육이 활성화 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학교 환경교육을 보다 강화하는 데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 학교 환경교육의 분산적 접근, 동아리 활동 및 각종 유관 자원 사업 현황 |

학교 환경교육은 독립 교과로서의 접근뿐만 아니라 초등 학교에서 모든 교과 및 특별활동, 재량활동에서 접근하는

방식과 중등학교에서도 다른 교과에서 접근하는 분산적인 접근방식이 있다. 이러한 분산적 접근은 교육과정 이 변화해 오면서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창의·체험 중심 교육과정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환경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교육되고 있고, 중등의 경우에도 과학, 사회, 실과 등 다양한 교과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등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 에너지교육 연구학교,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학교 등이 그것이다. 2012년에 이러한 각종 지원 사업에 참가한 학교가 전국에서 1,000개 학교가 넘는 것을 보면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이 학교 현장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자치 활동인 동아리 활동에서 환경과 관련된 동아리 수가 전체 학교의 약 50%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환경 관련 동아리 활동도 활성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학교 환경교육의 미래

지금까지 학교 환경교육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논의하였다. 환경교육이 교육과정 상에서 학교 교육에 자리를 잡고 활성화 되는 과정이나 분산적인 접근, 동아리 활동 등에서는 잘 자리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독립 과목 선택을 변화나 교사의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는 우려를 자아내게 된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학교 환경교육이 현재보다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제시하는 방안들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 학교 환경교육 종합 계획 수립 및 이행 |

학교 환경교육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이행이 필요하다. 이미 우리나라는 환경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이 법에 따르면 환경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종합적인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

하고 이 계획에서 학교 환경교육의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종합 계획이 수립되고 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를 평가해 나갈 때 학교 환경교육은 점점 그 입지를 확대해 갈 수 있을 것이다.

### | 학교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담당 부서 및 인원 배치 |

현재 학교 환경교육을 담당·관리하는 담당자나 부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별로 다르며, 그나마 해당 부서나 담당자는 다른 여러 가지 업무들 중 하나로 학교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힘들고, 정책과 학교 현장의 긴밀한 연계도 어렵게 된다. 이번에 새롭게 운영될 국가 환경교육센터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학교 환경교육을 담당하게 될 기관 혹은 부서는 가능한 환경 교육을 전공한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 환경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 |

현재 학교 환경교육의 현황 분석에서 드러난 것처럼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 확보가 다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은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기초' 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심화' 과정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육을 담당하는 일선 교사들의 전문성 확보와 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 환경 교사 임용 확대 |

앞선 교사의 전문성 확보와 같은 관점에서 학교 환경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점차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미 환경 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일선 학교에 많이 있음을 감안하여 우선 기존 환경 과목 전공 교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순회 교사 제도 등을 활용한다면 보다 유연하게 환경 전공 교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환경 교사의 정원을 확보하여 교사 임용 시에 이를 반영하여 환경교육을 전공한 후속 세대들이 자신들의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